

1 장, 변화하는 시대에서 기독교의 심장

웁킨이 김준우 박사는 책표지에서 이 책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이 책은 찬양과 경배 중심의 감정적 열광주의, 기적 중심의 신비주의, 믿음 중심의 성서 문자주의와 내세 중심의 교리적 근본주의에서 벗어나, 성서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종교에 대한 성례전적 이해에 근거하여, 영성적이며 실천적인 기독교 신앙을 밝혀준다.”(책 안쪽 표지)

보그는 과거의(earlier) 패러다임과 새로운(emergin) 패러다임을 비교하며 기독교가 새 시대에 새롭게 적응/적용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들 말로 ‘신학다시하기’(<http://www.saegilchurch.org/zbxe/theology>)이다.

A. 주제(Thesis).

- 기독교의 중심—“심장”—은 무엇인가? 기독교 역사상 끊이지 않는 질문으로, 우리들의 정체성에 관한 물음이다. 심장(heart)이란 단어 선택은 (신앙인의) 삶을 염두에 두고 있다.
- 패러다임의 변화. “패러다임이란 ‘전체’를 보는 방식 곧 종합적 이해방식(a comprehensive way of seeing)을 말한다” (p. 18). [paradigm << παράδειγμα = παρα + δείκνυμι, “to show alongside”]
- 보그가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성서와 기독교 전통을 보는 방식은 역사적(historical), 은유적(metaphorical), 성례전적(sacramental)이며, 기독교 삶을 보는 방식은 관계적(relational)이고 변혁적(transformal)이다. (p. 31)
-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점은 성서와 기독교 전통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성서와 기독교 전통, 곧 신성한 것의 은유와 성례전으로서, 거룩한 영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단으로서의 성서와 기독교 전통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다.” (p. 33)

B. 문제점(Problems). 재교육(reeducation)의 필요성

- 과거(earlier) 신앙의 패러다임과 역사, 과학과의 충돌 =>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남. 용어선택에 대해서, “과거의”/”보수주의적” vs “새로운”/”자유주의적”—그 의미의 차이 (15-16)
- 윤리적 문제. 성서 문자주의 이해에 따른 성서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도전. 예) 레 19:19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Living the Heart of Christianity: A Guide to Putting Your Faith into Action*, viii.
-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 속에서 과거의 패러다임의 기능, 역할

C. 논점(Argumentation).

- 역사적 예수 전문가=> 10년간 200여회 강연한 경험의 산물
- <기독교의 심장>은 기독교를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이다. 보그는 서문에서 “이 책은 일차적으로 과거의 기독교 이해방식이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이다”고 밝히며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한다 (p. 9).
-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독교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변화다. 똑같은 ‘현상들’(하나님, 성서, 예수, 교리, 신앙 등)을 보지만, 다르게 보는 것이다.” (p. 19)

	과거의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공통점	계몽주의 이후 등장	
성서의 기원	하나님이 만드심=> 신적 권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
성서해석	문자적-사실적(literal-factual) 해석 [1963년 65% 지지; 2001년 27% 지지]	역사적, 은유적 해석 ● 역사적=> 성서는 고대 공동체의 산물 ● 은유적=> “문자 이상”, “사실 이상”의 의미. (사실성보다는 의미에 중점)
성서의 기능	교리와 윤리의 계시	은유적, 성례전적(Metaphorical/sacramental) ● 성례전적=> 눈에 보이는 은총의 매개체
기독교인의 삶	내세, 구원받기 위한 믿음과 행동 ● 믿음=> 믿기 어렵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 ● 내세=> 영원히 머물 곳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이생에서 삶의 변화 ● 현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와 보상(requirements & rewards)=> 내세의 축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요구 ● 현대(modern)/계몽주의(Enlightenment)의 산물=> 17세기 이후 신학문에 대한 반작용, 부정적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한 것의 은유와 성례전으로서의 기독교 전통 안에서 살아감을 의미. ● 현대(modern)/계몽주의(Enlightenment)의 산물=> 17세기 이후 신학문에 대한 긍정적 반응
여성 안수	성직자 안수 불허	성직자 안수 허용, 주류 교단 신학교 과반수 이상이 여성
동성애자	죄로 간주=> 금욕, 이성애로 전환	선택의 문제. 남은 논쟁의 초점은 동성간의 혼인과 성직자 안수 문제
기독교 배타주의	2002 여론조사, 17% 기독교가 “유일한 길”(only way)	78% 동의하지 않음. [Q. 어떤 의미에서 “유일한 길”인가? 질문이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형성됨’]

- 차이점을 극복하는 작업
 - 기독교의 다양성 이해=> 역사적, 문화적 요소; 예배 형식; 신학의 다양성
 - 옳고 그름의 문제(modern)에서 기능성의 문제(post-modern)로. 초점은 과거의 패러다임이든 새로운 패러다임이든 그것이 내/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는가” 아니면 “방해가 되는가”하는 문제다 (p. 39) => 전도의 문제 [평가. 좋은 지적! 왜? 결정권이 피전도자에게 있기에]
 - 끝나지 않는 대화(An unending conversation). 신학의 과제=> 주어진 것(성서와 전통)을 새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신학다시하기)

D. 평가(Critique).

- “과거의 패러다임은 ‘기독교 전통’이 아니라, 기독교 전통을 이해하는 특수한 방식이며 비교적 최근의 방식으로서, 지난 몇 백년 동안에 걸쳐 현대성과의 갈등에 의해 생겨난 방식이다. 기독교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패러다임 역시 현대의 산물이다.” (p. 30)
- 과거의 패러다임 속의 근본주의 이해. (<http://en.wikipedia.org/wiki/Fundamentalism>)
 1. The term "fundamentalism" has its roots in the [Niagara Bible Conference](#) (1878–1897) which defined those things that were *fundamental* to Christian belief. The term was also used to describe "[The Fundamentals](#)", a collection of twelve books on five subjects published in 1910 and funded by Milton and [Lyman Stewart](#)^{[11][12]} This series of essays came to be representative of the "[Fundamentalist-Modernist Controversy](#)" which appeared late in the 19th century within the [Protestant churches](#) of the [United States](#), and continued in earnest through the 1920s. The first formulation of American fundamentalist beliefs can be traced to the Niagara Bible Conference and, in 1910,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which distilled these into what became known as the "five fundamentals":^[13]
 - The [inspiration](#) of the [Bible](#) by the [Holy Spirit](#) and the [inerrancy](#) of Scripture as a result of this.
 - The [virgin birth](#) of Christ.
 - The belief that Christ's death was the [atonement](#) for sin.
 - The bodily [resurrection of Christ](#).
 - The historical reality of [Christ's miracles](#).
 2. By the late 1910s, theological conservatives rallying around the Five Fundamentals came to be known as "fundamentalists."
- “주어진 것”(given)=> 기독교 정체성. 전통 속의 기독교 언어는 새롭게 해석되고, 삶으로 적용되어야.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p. 41)

생각해 보기

1. 기독교, 기독교인을 정의하면? (내가 보는/생각하는 기독교란? 기독교인이란?)
2. 기독교/기독교인으로서 (혹은 그렇기 때문에) 내 일상의 삶에 차이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